

지역 소식통

고창소방서, 성탄절·연말 연시 특별경계근무 돌입

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대형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총 802여명의 인력과 소방차량을 비롯한 장비 32대 등 가용소방력을 모두 동원해 완벽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곧바로 초기대응에 나선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화재 취약시설 위험요인 사전 제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 지도 △기습폭설 및 한파 대비 월동장구 점검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생활안전민원 적극 지원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등이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군민이 편안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화재 예방활동과 긴급출동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가족센터, 방문교육 지도사 사업 보고회 개최

부안군 가족센터(센터장 김화순)는 지난 16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2022년도 방문교육서비스 총량 및 2023년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되었다.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지도사가 가정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의 방문교육사업은 한국 어 6명, 부모교육 7명, 자녀생활서비스 22명으로 총 35가정이 방문교육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다문화가족들이 증가하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찾는 가정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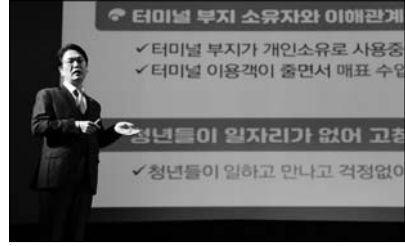
“청년들이 돌아오는 고창”

심덕섭 고창군수, 혁신지구 사업 설명… “쇠퇴한 터미널, 청년문화복합공간으로” 강조

심덕섭 고창군수는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 “쇠퇴한 터미널을 청년문화복합공간으로 바꿔 청년들이 돌아오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사업지구 사업설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반세기 넘게 군민들이 애용했던 고창공용버스 터미널에 대한 주민들의 추억과 바라는 점이 영상으로 상영됐고, 이후 심덕섭 군수의 PT가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설명회에서 “쇠퇴한 터미널, 청년문화복합공간으로” 강조하며, “청년들이 돌아오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군수는 “취임직후 터미널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며 “특히 주거·상업·문화·터미널이 결합한 고창군만의 특화된 사업계획과 군의 추진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선정 비결을 소개했다.

고창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핵심목표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력넘치는 고창’이다. 먼저, 지하 1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지상 1층은 필로티 구조의 버스터미널로, 2층은 식당가와 꽃집 베이커리 등 상가층으로 구성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식과 첫 심의회를 열었다.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 출범

고창군, 본격 시행 앞두고 위촉식·첫 심의회 열어

고창군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식과 첫 심의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고향사랑기부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 활용사업의 선정·평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고창군만의 특색 있는 기금사업 발굴과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향후 고창군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및 기금설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준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게 된다. 위원장인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고창군에 기부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군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부지도 만족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노인·장애인 맞춤형 정책… ‘행복 정읍’ 실현

민·관 복지시책 위해 머리 맞대

정읍시가 어르신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모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행복한 정읍을 다해나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인구는 2022년 11월 말 기준 10만5,176명이다.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2,259명(29.6%), 장애인 인구는 9,998명(9.5%)이다.

이같이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2023년 노인·장애인 관련 예산 1,8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 등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 보조기를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반계 류형원 선생 탄신 4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반계 류형원 선생 탄신 400주년 기념행사인 제16회 동아시아실학 국제학술대회, 영호남 지역문화교류 퇴계학과 반계학의 만남 학술회의, 반계유적지 답사를 고려대학교 대강당(아주홀)과 소노벨 변산, 반계유적지(반계서당, 생가터 등)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한국실학학회와 부안군의 공동주최하고,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와 부안문화원,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반계 선생 탄신 40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준비한 기념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제

16회 동아시아실학 국제학술회의’는 ‘위기의 시대 실학을 다시 생각한다’ 주제하에 ‘동아시아 경제학과 반계수록’, ‘위기의 시대 동아시아 지식인의 역할’, ‘동아시아 학술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 한국, 중국, 일본, 유럽의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으며, 반계실학을 위기의 시대 대처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16회 동아시아실학 국제학술회의’는 ‘위기의 시대 실학을 다시 생각한다’ 주제하에 ‘동아시아 경제학과 반계수록’, ‘위기의 시대 동아시아 지식인의 역할’, ‘동아시아 학술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 한국, 중국, 일본, 유럽의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으며, 반계실학을 위기의 시대 대처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연말 맞이 마술공연 성료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2022년 연말 맞이 행사로 지난 18일 중앙도서관 소강당에서 ‘책 읽어주는 마술사의 선물상점’ 마술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의 독서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을 읽고 체험하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만 4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총 120여 명이 관람했다.

‘책 읽어주는 마술사의 선물상점’은 레이먼드 브릭스의 ‘눈사람 아저씨’와 아이미에 작가의 ‘달려구트 꿈 백화점’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이다.

국내 유일의 ‘책 읽어주는 마술사’가 동화책 이야기와 마술을 접목해 책 속의 장면들을 마술처럼 선보이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다. 또한 무대 곳곳에서 나타나는 마술



과 시시각각 바뀌는 스토리 반전은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님들의 재미와 흥미를 이끌며 오감을 자극했다. 특히, 공연 중에 어린이 관객을 무대 위로 불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공감형 마술을 선보이며, 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도서관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학부모는 “연말 맞이 아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